

사회

“택시 대중교통되면 버스 올스톱”

버스업계, 국토위 통과 법 개정안 철회 촉구

내일 긴급비상대책회의, 운행중단 논의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버스운행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나서 과정이 예상된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20일 오

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조 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버스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2일 오전 광주를 포함해 전국 버스를 한시적으로 전면 운행중단하고 23~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 노선버스 사업 포기에도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된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알박한 꼼수”라며 “법안 철회와 함께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될 경우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으로 대중교통 기능 훼손 ▲국민 열세 남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민경제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대비해 광주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구도 국회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김동기 이사는 “고급교통수단인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20일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봐야겠지만 회의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전면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930대(종사자 2500여명)로 하루평균 9700여차례 운행되고 있으며 연간 3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지역 택시는 모두 8186대(개인 4748대, 법인 3438대)로 종사자만 8600여명에 이르며 유가보조금으로 연간 170억 원을 지원받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들 사랑의 연탄 배달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골목길에 죽 늘어서 연탄을 열 친구에게 전달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따뜻해진다. 지난 17일 청소년 적십자지원단이 광주시 동구 지원 2동의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빈집·차량털이범 둘 검거

화순경찰은 18일 상습적으로 빈집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가솔 청소년 최모(18)군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14)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 교리 이모(30)씨의 집에서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빈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고흥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돈선거

대의원 15명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뿌려

2명 구속·13명 불구속

농촌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란히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선거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도 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장봉문)는 18일 “고흥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낙선한 황모(62)씨와 선거운동원 박모(6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사장 당선자 김모(63)씨와 선거운동원 송모(73)씨,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11명 등 모두 13명 불구속 기소했다. 김이사장 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교통정리 경찰 들이받은 ‘김여사’

○아침 출근시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김여사’(운전자 서툰 여성 운전자를 지칭하는 유행어)가 경찰서행.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무소 차량을 운전하던 서모(42)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에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산초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박모(45) 경사를 들이받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현재 일일 치료중”이라며 “운전자 서툰 사람이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핸들을 잘못 꺾어 박 경사를 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3억 빌린후 약속 못지켜 수백억 날릴 판

협약서 잘못 썼다가 교회·납골당 넘어갈 위기 목사·사업자 고소에 투자자들 “정당한 거래”

협약서를 잘못 썼다가 교회 건물과 납골당 사업체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목사와 사업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사 등은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해 교회·납골당 토지 및 건물(약 400억원)은 물론 1000억원 대에 이르는 사업권까지 투자자들

이 가져가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 S교회 목사 이모(59)씨와 주식회사 N추모공원 공동대표이사 박모(57)씨는 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제

가등기 설정 등을 협약했다. 그러나 이 목사 등은 6억원을 약속한 기일에 내놓지 못했고 결국 2010년 초 A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후 이 목사 등은 투자자를 찾아가 6억원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박씨는 “양도담보(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없이 토지 및 건물 등기를 해갔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 A씨는 “정당한 투자와 협약서를 근거로 한 법 절차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80억 7700만원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김모(45)씨, 불구속 기소된 이모(여·60)씨와 전모(43)씨에게 각각 이자로 22억원, 11억원, 5억원을 주고 또 다른 채권자에게 7억원을 지급했다. 또 구속기소된 김씨의 지인 최모(여·39)씨에게 4억원,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처남(37)에게 5억원을 줬다.

다른 여수시청 공무원의 가담 여부도 대해서도 수사한 검찰은 다른 공무원의 공모 없이 허술한 여수시의 회계시스템 및 결제 과정을 악용한 김씨의 단독행위로 결론지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80억 횡령 여수공무원 통장 잔고 33만원”

광주지검, 수사결과 발표... 대부분 회수 불가능

여수시청 기능직 8급 공무원 김모(46)씨 부부가 횡령한 시인 열세 80억 7700만원 가운데 여수시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의 관련 계좌 잔고가 33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채무변제나 거래 등에 쓰이고 채무자 등이 범죄

수익인 것을 알면서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여수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횡령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종환)는 18일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 사건’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 부부의 돈을 받은 사채업

자 및 친인척들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융거래도 이에 부합하며, 몰수·추징 대상도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환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뒤늦게 6억원 가량의 김씨 부부, 친인척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했으나 이 역시도 지리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화한다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원한의원비 의료광고사업 제120917-중-11712호 [광교]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라지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물이 뿌여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